

1회 추경 2억원 추가 확보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추진 박차

순창군이 1회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은 28일 이번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포함해 총 8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내 시설 증·개축, 화장실·주방 개보수나 시설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업장에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단, 그릇교체는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는 역대 최대 지원규모로, 국내외

여건 악화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군은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관내 음식점 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점차 음식점들이 좌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변화함에 따라 군은 관내 음식점들 또한 입식 테이블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자가 최근 2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이면 된다.

특히, 창업의 경우에는 최근 1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는 군민이면 가능하다.

군은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이번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는 한편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읍 면 사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황숙주 군수는 "음식점은 맛과 청결이 최우선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시설개선으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순창으로 거듭 나는데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남원시가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힘차게 출발시켰다.

이 사업은 남원시와 35사단 7733부대 3대대,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력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전역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호응을 통해 올해에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해 10명의 참여자들이 사회복지시설과 행복복지센터 10곳에서 꿈을 펼치고 있고, 남원시는 올해 참여자 10명에게 희망을 심어줄 계획이다.



남원시가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힘차게 출발시켰다

올해 1호 참여자는 김진영씨로, 김씨는 2년 동안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군 복무를 마치고 부대의 추천을 받아 25일 노인요양시설 경애원에 취업하게 됐다.

김씨는 "몸이 아프신 할머니를 옆에서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웠다"며, "제대한 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 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애원 관계자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참여자 덕분에 노인요양시설이 활기치게 운영될 것 같다"며 어려움 인력난 해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편 이환주 시장은 "청년에게는 경제활동을 통한 희망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의 유출 예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클린순창여성리더연합회, '깨끗한 순창만들기' 기동역할 특독

순창군 풍산면 클린순창여성리더연합회(회장 김순례) 회원 20여명은 지난 25일 덕산마을 저수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해 클린순창 운동에 기동역할을 특독히 해냈다.

특히 이날 수거한 쓰레기는 무려 1.5톤가량으로 여성들이 주축이 돼 진행한 클린순창 만들기 활동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양을 수거해 보여주기식 캠페인에서 탈피한다.

실질적 농촌환경 정화 활동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순례 풍산면 클린순창여성리더 회장은 "봄을 맞아 순창과 풍산면을 찾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순창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캠페인에서 벗어나 클린순창운동이 실질적인 농촌환경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클린순창 운동에는 최형구 풍산면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클린순창 운동의 성공을 도왔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이 대한민국 국민대상 지역발전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이환주 남원시장, 대한민국 국민 대상 수상

이환주 남원시장이 26일 2019 대한민국 국민대상에서 지방자치행정 부문 지역발전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대상은 (재)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주최하고 인스타코리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공헌한 국내 오피리언 리더를 선정하고 그 공을 차하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최고의 상이다.

이환주 시장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남원시 사랑상품권 발행,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조성, 구)역사공원조성, 남원예천 인프라 구축과 국립공공의료 대학원의 조기개교,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 도시가로망 정비,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공급 정상화 개량사업 이다.

시민에게 매우 친절한 소통행정 운영 등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다.

대상을 수상한 이환주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행복하고 꿈꿔 왔던 자랑스런 남원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민 임실군수, 주요핵심사업 현장행정 실시

심민 임실군수가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에 따른 안전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26일에 실시한 현장방문에서는 임실천 주요사업장과 운안 임실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사업장 등을 방문해 안전점검 실시 했다.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임실천은 임실천 하천환경정비 사업(111억원), 임실천 경관개선 사업(39억원), 임실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00억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심민 군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 현장 점검 이야 말로 가장 기본적인 현장행정이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운영

남원소방서는 26일 오전에 인월면 취임마을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을 운영했다.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은 화재에 취약한 마을을 선해 다양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 마을단위 방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 후에는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정리와 민원 고충사항 해결에 나섰다.

조용주 소방서장은 "관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건강보험공단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은 모두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4월 1일~5월 7일까지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집공고를 참조해 신청하면 되고,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5월 23일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자 개별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고객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기획부(033-736-315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19년 나눔과 희망 집 고쳐주기 사업 협약

임실군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6일 임실지역 자활센터, 자활기업(공간건축, 알과 임실점)과 '2019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임실군은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권기금 및 군비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관내 저소득층 계층 75가구에 대한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를 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지붕개량, 벽체, 화장실, 부엌개량 개 보수로 거주자의 안전 건강 위생 생활불편 해소 등 사회적 주거 약자를 배려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한다.

임실군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생활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자재사용과 지역인력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심민 임실군수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생활여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실군과 자활센터, 자활기업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